

“주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김영선

포항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 난해 7월 중순 오전 9시 부지런히 병원으로 가서 2층 소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하고 호스피스병동으로 갔다. 과장님께서 직장암으로 새로 입원하신 환자를 소개하며

성격이 까다롭다고 했다. 같이 봉사하는 자매와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로 갔다. 침대에 누워서 인사하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더니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당황하는 것이다. 얼굴은 창백하고 안면신경이 마비되어서 입이 삐뚤어졌고, 깡마른 체격이다. 우리는 자원봉사자임을 소개하며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김 스텔라님은 얼마전 고백성사를 보고 냉담을 풀었지만 하느님이 계시면 “왜, 이런 병에 걸리는지요?”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하느님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있지만 밤이면 잠잘 수가 없고, 변도 보지 못하여 두렵다고 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며 눈을 감아버렸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 속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만 하고 나왔다. 그후 환자는 방문할때마다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 못하고 그때마다 나는 주님께 김 스텔라님의 마음을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 기도 덕분인지는 몰라도 3주째 되어서야 환자분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으나 무척이나 우울한 표정이었다. 사연인즉 알고 지내던 수녀님께서 얼굴에 바르는 한방약을 주시고, 기도도 해주고 가셨는데 수녀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인간에게 의탁하고 있는 자매에게 창가에 있는 성서를

펴서 시편139장을 소리 내어 읽었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 있어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 아십니다.”

라고 읽고 있는데 환자분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김 스텔라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께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한 후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하며 다리 마사지도 해드리고 신앙이야기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병실에 갔더니 과장님이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김 스텔라님은 반가운 얼굴로 나를 반기면서 20일 동안 변을 보지 못했는데 전번에 기도 해주셔서 변을 보게 되었다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다며 열심히 기도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슬하에 아들만 셋 있고 남편은 멀리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가끔씩 오지만 자기의 흉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만나지 않는다며 아들이 간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혼자서 화장실에 다니던 거동이 불편해지고 있었고, 얼굴은 노랗게 황달이 왔다고 하며 답답하여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나는 안타까워 따뜻한 물로 다리를 맞사지 해 드리고성가를 부르며 봉사하게 된 동기며 나의 생활에 대하여 궁금해 하여 이야기 해 주었다. 나는 봉사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 해 주었고 듣고 있던 자매님은 그런 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하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의탁하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다.

어느덧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면서 환자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있었고 의식도 가끔씩 흐려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병실로 갔더니 촛불을 켜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나의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평화, 사랑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드렸다. 그날 나는 성당에 가서 김 스텔라님을 위해 하나님께 편안하게 임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날 다시 방문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거부한다고 하여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고 하면서 손을 잡아보고 다음에 만나기로 하고 나왔다. 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주간은 방문하지 못한 사이 9월24일 사망소식이 왔다. 나는 한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버린 환자가 원망스럽기까지 했고 또 임종때 함께 해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까워 지금까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호스피스 개설당시부터 봉사하고 있는 지금도 새로운 환자를 만날 때 마다 어렵고 힘들며, 첫 만남의 두려움,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마음의

친교를 이루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잠시뿐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마음은 약해지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죽음의 공포와 아픔에 신음하는 환자를 볼 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이 순리라면 이분이 내 대신 죽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고 감사하다. 임종에 이르러 죽음이란 싸움에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모진 아픔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이 모든 것을 앗아가지만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사랑뿐이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나를 버리고 상대를 받아드리며 위로할 줄 아는 겸손을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기 보다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쁨이라는 희망 속에서 진솔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감사하며 봉사하리라.

주님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